

**담당 : 홍보팀 강명윤 대리ㅣ Office : 02)560-4442 ㅣ Mobile : 010-2996-7842 ㅣ E-mail : media@klpga.org**

**제13회 E1 채리티 오픈 우승자 박현경**

**관련기록 및 코멘트**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제13회 E1 채리티 오픈 |
| 2 | 기 간 | 2025년 5월 23일(금) ~ 5월 25일(일) |
| 3 | 장 소 | 페럼클럽 [동(OUT) / 서(IN)코스]  |
| 4 | 주 최 | 주식회사 E1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예선: 6,569야드, 본선: 6,366야드 |
| 8 | 참가인원 | 144명 |
| 9 | 주요출전선수 | 배소현, 이예원, 방신실, 김민주, 박보겸, 김민선7, 고지우, 박현경, 박지영,송은아, 정윤지, 이소영, 이정민, 이지현2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2라운드] 11시 ~ 17시[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박현경, 최종합계 16언더파 200타(67-67-66) 우승**

**◈ 박현경, 2025시즌 첫 우승이자 KLPGA투어 통산 8승 달성**

**◈ KLPGA 통산 12번째 노보기 우승**

\*이전기록



**◈ 각종 타이틀 순위 변동**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2위**(▲4), 누적 206pt(▲70pt)

상금: **6위**(▲16) 누적 284,439,087원(▲180,000,000원)

**◈ 박현경 코멘트**

**Q. 우승 소감?**

전반에 이글이 나오면서 오늘 만약 우승을 한다면 타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편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후반에 이채은2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오늘도 쉽지 않겠다고 직감을 했다. 마지막 홀에서도 연장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나한테 운이 조금 더 있었다. 이번 우승 또한 한 타 차라서 힘들었다.

**Q. 상금 100% 기부를 결정한 이유?**

이 대회가 채리티 대회고 기부 문화가 많이 생각난다. 혹시 우승을 한다면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고, 방송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아버지께 13% 기부에서 100%로 올린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경기 중간에 우승하면 100%로 올리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실현할 수 있어서 좋다.

**Q. 17번 홀 당시 어떤 생각?**

제가 핀과 1M 가까이 붙여놨는데, 이채은2 선수가 어드레스를 할 때부터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타격은 없었다. 우승은 마지막 18번 홀 파 퍼트를 남겨뒀을 때 직감했다.

**Q. 역그립으로 퍼트를 바꿨는지?**

퍼트를 할 때 미세하게 조금씩 손을 쓴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서 두산 매치플레이 16강에서 떨어지고 나서 역그립을 연습하면서 주변 선수들이나 코치님, 아버지께 조언을 구했다. 만장일치로 역그립을 잡았을 때 손을 안쓴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주변의 말과 내 감을 믿고 역그립으로 바꾸게 됐다.

**Q. 노보기 우승도 특별할 것 같은데?**

내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노보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렇게 노보기 우승을 하게 돼서 이번 우승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Q. 목표?**

입버릇 처럼 말하는 위메이드 대상을 타고 싶다. 최근 5개 대회 연속 톱텐을 하면서 위메이드 대상에 조금씩 다가가는 기분이다. 우승도 좋지만 꾸준히 잘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